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9월호 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www.durano.com/moksin>)

우리의 삶을 성경의 원리로 채워나갑시다

홍정길 목사 / 남서울은혜교회 담임목사 / 2002. 9
(요약된 내용입니다)

올해 1월 초 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마이애미에서 상파울로로, 거기서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남미 KOSTA(해외 유학생 수련회)를 마치고 시카고를 경유해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미국에서 만난 경영학 교수의 얘기를 두고두고 곱씹어보게 됩니다. 그분은 요즘 세계 경영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리더십이며,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의 리더십은 성경적 원리에 접근한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사인 제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기업들까지 성경적 원리에 접근하는데 반해 교회는 성경에서 떠나 세속의 원리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세계 교회의 문제라는 말은 제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더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상관없는 축복들이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부인 양 왜곡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기독교 저술가들의 베스트셀러를 보면 성경보다 더 멋있고 위대한 말을 하려고 애쓴 흔적을 봅니다. 그 책에 많은 젊은이들이 매료되고, 작가들은 자신의 책이 많이 읽히고 자신이 가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들어 자신의 말이 곧 진리라는 공식을 내놓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는 씨앗들이 5년, 10년 후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텐데 어떤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이 나라와 교회가 이 세대의 문제 앞에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남미 KOSTA에 다녀오면서 겪은 감격스러운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KOSTA 기간 동안 한 분의 간증이 제 심령을 두드렸고 저를 큰 감동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곱 살 때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중동지방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한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중동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으로, 또 브라질로 다녔지만 안정하지 못한 채 결국 최후의 장소라고들 말하는 파라과이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1등을 해서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기에 열심히 공부했고, 아순시온 국립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하는데 늘 제시간에 불이 꺼지는 기숙사에서 불이 켜진 곳을 찾다 시체실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 시체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장소가 바로 시체실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조그마한 미생물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보며 시작된 생명의 신비에 대한 의문은, 결국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의 일입니다. 의과대학의 마지막 시험은 구두시험이었는데 교수들이 그때까지 배운 것 중에서 질문을 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과정을 잘 안다. 그러니 길게 말고 딱 한 문제로 승부를 짓자.’ 그 때 저는 이 학교에서 마지막 수석은 내게 주지 않기로 걱정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면 파라과이에서 한국인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엔 아르헨티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귀기 싫은 민족 1위가 한국인이었고 그것은 브라질에서도 파라과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껏 수석을 뒀지만 졸업 시험에만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한국인인 제게 수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답을 못하면 영점이 되니 문제를 하나만 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님은 그곳의 여러 교수님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한국인이 경영하는 채소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게 물건들을 아름답게 진열합니다. 가게에 갖다 놓을 물건을 늘 정성스럽게 골라 와서 그 집 채소는 언제나 싱싱한 최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채소라면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기분 좋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 더 귀한 것은 주일이면 그들은 정장을 하고 교회를 가서 저녁이면 기쁘게 찬송하며 돌아옵니다. 그들을 보면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인 중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나도 좋은 한국인일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얘기를 마친 교수님은 쉬운 문제를 냈고 저는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한국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 때문에 저는 파라과이의 어떤 병원에서도 인턴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권인 스페인의 국립대학에 인턴으로 가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 학위까지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왔지만 어디서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외국인이 경영하는 카톨릭 의과대학에서 저를 초청해서 외과 교수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부학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명성을 얻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히 동창들이 저와 동업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학교를 은퇴하면 가난한 교수 연금만으로 살 수 없으니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하며 자신들의 병원에 오면 이런저런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고, 부자들은 병원을 지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지 않기로 걱정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사로 만드신 것은 돈을 벌게 하려는 게 아닌 사람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없는 인디오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카톨릭 의과대학 병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생기면 몰라도 저는 돈 때문에는 움직이지 않기로 걱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땅에서 이기적이고 알미운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졸업시험이 있던 날, 저는 저희 지도교수님 이웃에서 채소가게를 했던 아름다운 한국인으로 인해 큰 덕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평판이 나쁜 남아

메리카에서 저라도 바로 서 있으면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혜택을 볼 것입니다. 저는 바로 섰던 한국인들이 있었기에 덕을 본 사람이고, 그래서 빛진 사람입니다. 제게는 이 빛을 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므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은 시간을 들여 피곤했던 여정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한국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세계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밝혀 줄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설 때만 이런 신앙이 가능합니다.